

I. 들어가는 말

작업치료는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대인관계적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의미있는 활동인 ‘작업(occupation)’을 통하여 그 저하된 기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찾아주며 유지시켜주는 보건의료의 한 분야이며,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활동 기술을 포함한 클라이언트의 상실된 삶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대인관계적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전인적 접근을 한다는 면에서 보건전문가이며 또한, 교육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작업치료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건강한 사람이란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맞게 수면·휴식, 일상생활활동, 교육, 일, 여가 등 다양한 작업영역에서 균형 있는 참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정윤화, 2018, 14).

작업치료사는 모든 생활단계에서 사람들을 위한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건강 전문가로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사람, 작업, 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작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탐구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할 수 있고, 작업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대체 작업을 찾는 것일 수 있으며, 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거나 공간 내에서 사물을 재배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Mynard, 2020, 28). 재난으로 인하여 붕괴된 우리의 작업과 지역사회는 재난 이전의 상태로 완벽히 되돌아 갈 수 없지만, 우리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변화된 작업에 다시 참여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붕괴된 작업을 점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Whiteford, 2010: 정윤화, 201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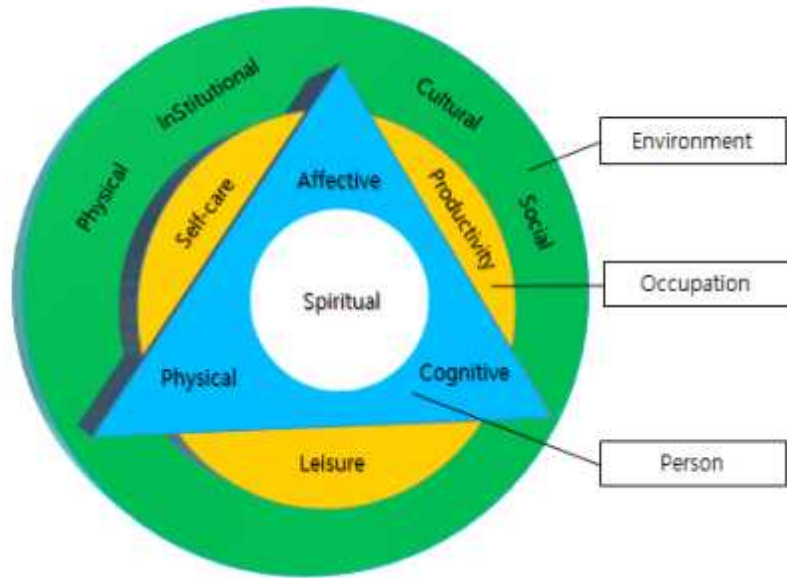
재난상황에서의 작업치료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일상생활 수행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신변관리, 재활, 필요한 보조도구 등을 제공하며 작업수행을 촉진시킨다(김정현, 2016, 22).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공보부(2015)는 재난 이후 겪을 수 있는 작업제한과 작업박탈을 작업영역 별로 수면 등

전반적 작업활동의 제한, 기본적 일상생활/건강관리 작업의 제한, 놀이 작업의 제한, 교육 작업의 제한, 돌봄, 가사/지역의 복합활동 작업의 제한, 직업/생산활동 작업의 제한, 여가활동 작업의 제한으로 제시하였다. 재난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 겪는 하나의 경험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경험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이 이러한 회복 과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재난 이후의 삶이 비록 이전과는 같을 수 없겠지만 그 삶이 또 다시 차별과 낙인 속에서 왜곡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다(한 희, 2019, 5).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감염병,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재난이 만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민족과 국가의 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박동일, 2020, 36).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라고 하며 기존의 삶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의 삶을 살라고 하면서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조성돈, 2020, 22). 작업치료학의 캐나다 작업수행 모델에 따르면 영성은 사람 안에 존재하고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작업에 의미를 준다고 하였으며(Figure 1), 인간은 영적 존재고 그 행위는 영적 표현이며 사람의 동기와 목적은 그 사람의 영성에 좌우되고, 또한, 영성은 전인적으로 사람을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 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맥락(내용)이라고 하였다(Donica, 2008, 109). 영성을 바탕으로 한 신체와 감정, 인지요소를 소유하고 환경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작업을 통해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보는 작업치료학의 신념은 실제적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작업 수행을 통해 영성이 인성으로 우리나라 수 있도록 적용, 훈련하는 영적 작업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한다(이계능·황기철, 2016, 18).

회복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곳곳하게 되튀어오르는 비인지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하는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개인이나 조직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여진다(2011, 김주환, 18). 영성에 좌우되는 사람의 내적동기가 그 사람의 작업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회복탄력성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영적 작업을 통해 각 개인과 사회의 회복탄력성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실질적인 작업치료적 대처 및 재난의 영적인 의미와 영적 작업을 통한 재난대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From Enabling Occupation : An Occupational Therapy perspective © CAOT 1987

[Figure 1] The Canadian model of occupational performance

II. 재난과 영적 작업

1. 재난과 작업치료

재난 상황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작업영역에서의 참여를 제한하여 작업적 균형을 깨트리며, 결과적으로 재난 이전에 형성된 자신들의 역할과 일상을 파괴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AOTA, 2011: 정윤희, 2018에서 재인용). 재난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 참여는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향상, 재난으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 완화, 그리고 신체 및 정신적 회복을 촉진하여 개개인의 가치 있는 삶과 본래의 역할 복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작업치료사는 재난현장에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해야만 하는 활동, 하고 싶은 활동들을 자극하여 조기 회복 및 재활에 이바지한다(김정현, 2016, 22).

작업의 박탈(occupational deprivation)은 외적 상황들로 인해 인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작업의 박탈이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애도기간 등)와 사회적 요소가 아닌 개인적 요소로 인해 발생한 경우(다리골절 등)는 작업의 붕괴(occupational disruption)로 명명하며 ‘질병, 일시적 자리전환, 일시적 실직으로 필수적 혹은 의미 있는 작업 참여가 순간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제한된 상태’를 의미한다(Jennifer & Lesley, 2012, 49). 작업의 재참여는 재난 이후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작업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다시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수단임으로, 작업을 회복의 수단 및 결과로 여기는 작업치료 전문가들은 재난상황에서 ‘작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적의 ‘작업’을 제공하는데, 재난 상황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재난 이전 대비과정, 비상 대응 단계, 그리고 재난 이후 회복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회복 과정은 재난관리의 단계들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다(Table 1)(정윤희, 2018, 17-19).

Table 1 Disaster management by Occupational therapists

Disaster management process	Role of occupational therapist
Preparedness	(1) Design plans for evacuation and shelter accommodation (2) Survey risks and resources in community (3) Educate community personnel (4) Be knowledgeable about managing emergency and functions of key organizations (5) Inform OTs' roles to stakeholders and the public (6) Partners with key stakeholders and organizations
Response	(1) OT clinical practice(Emergency treatments) Although interventions consider bo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ose mainly focus on improving the physical damages (2) Assess resources available in community (3) Educate the first responders
Recovery, Rehabilitation, Reconstruction	(1) OT clinical practice(Post-disaster rehabilitation services) Interventions more focus on improving mental health (2) Educate and train local personnel, volunteers and caregivers (3) Build capacity of OTs to be part of disaster management

또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공보부(2015)는 재난상황의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1) 환경을 평가하고 여러 역할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 2) 기본적 욕구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함(보조도구나 작업을 도울 수 있는 물건을 포함), 3) 우리는 같은 ‘사람’임을 공감하는 것이 원칙, 4)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5) 보조도구 등을 활용하여 목적/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접근함, 6) 활동/작업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함, 7) 현재의 환경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자원/재료/능력을 찾고 활용하여 작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속되도록 모니터 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Lorrae Mynard(2020)는 코로나19에 대한 작업치료 지침서에서 재난으로 인한 혼란이 우리의 정신건강, 피트니스 및 직업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작업치료 구성영역(domain)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대처 작업들을 제시하였다(Table 2). 장애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자신의 창조적 활동의 발달과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서의 주된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Table 2 The Occupation of Dealing with Disaster By Domain of occupational therapy

Domain of occupational therapy	Coping Occupation
Produ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 people may need to become familiar with online meeting platforms to keep the work going. - Be deliberate about keeping in touch with colleagues, fellow students or peers. - Some people will continue going to their workplace, It's super important to make sure you still eat, drink and take breaks to get through your shift and that you support colleagues by checking in with each other regularly. - Depending on your skills, experience and location there may be an opportunity to move into a new role within industries that are taking on more staff to support their pandemic response - While securing an income is essential, you may still be able to do things that give you a sense of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through making a contribution.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supporting mental health and wellbeing.
Self-C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opping & Food: Pull out a recipe book or watch an online video to develop your skills in the kitchen. - Exercise: Be deliberate about including exercise in your day. Be deliberate

	<p>about including exercise in your da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 disciplined, (which is also being kind to yourself) and keep regular bedtimes and waking times. Do something that helps you to wind down.
Leisure	<p>Do something you've long been putting of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t together a photo album - Master a new skill in the kitchen or workshop - Learn to play a new piece on the piano or guitar
Setting up your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ider whether there are any things you can bring into your environment to help you during this time of more restricted community movement - Nourishing your senses: Sounds, taste, fragrance, visual surroundings - what makes you feel comfortable and engaged? music to lift your mood, use herbal tea or essential oils, Open a window for fresh air or to have some background noise.
Routines	<p>Keep as much routine as you can : It's really important to try to maintain as usual a routine as possible or to create a routine that can become the 'new normal' for you and your household during this period.</p> <p>Finding Balance: It's really important to aim for a balance of self-care, productivity and leisure occupations in your routi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 careful about how much time you spend consuming the news. Not only can this amp up anxiety, it might also be a distraction from other things you need to be doing.
Roles	<p>Think about the roles that you identify with and consider how you can maintain and even develop these during this time of social distancing and isol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line tools can help you stay in touch with friends and family. Try an old-fashioned way of relating to people - pick up the phone.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revive the role of being a neighbour.

2. 영적 작업을 통한 재난대처

(1) 재난의 영적인 의미

현재의 코로나19 펜데믹의 원인이 성찰 없는 과학만능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정치가와 일반시민들은 이번 코로나19 재난 역시 과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신영전, 2020, 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고, 고통, 창조, 일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의 위기가 과도하게 부추겨진

우리의 욕망과 탐욕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한다(유미호 외, 2020, 169).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의 취약성을 상기시켜주고 인간의 죄로 인해 손상된 세계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삶과 죽음에 관한 큰 질문도 외면할 수 없다(존 레녹스, 2020, 67).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성찰이며 선부른 해결책의 제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잉된 자아를 내려놓고 듣는 것, 과도한 주체성을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백성우 외, 2020, 213).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확성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존 레녹스, 2020, 68).

존 파이퍼(2020)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대답을 제시하였다(Table 3).

Table 3 John Piper's View on Corona Virus

Question	Answer
What is God doing through the Corona virus?	1) The same is true of other disasters, but through the outbreak of the Corona virus, God shows the world the spiritual ugliness of sin of not worshipping God, and its terrible moral reality like a picture. 2) Some of the people will be infected with the Corona virus under God's special judgment because of their evil attitudes and deeds. 3) The Corona virus is God's wake-up call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Christ. 4) The Corona virus is God's thunderous signal that we all repent and reorder our lives in light of the infinite values of Christ. 5) Corona virus is the call to make God glory by overcoming self-pity and fear, and by doing good with courage, joy and love. 6) Through the Corona virus, God awakens the complacent believers around the world to do new and innovative work, and to preach the gospel of Christ to those in the world who do not believe in the gospel.

하나님께서서는 우상숭배에 빠져 타락한 이스라엘을 벌로 징계하실 때에도 완전히 진멸치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새 언약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33)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재난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작업치료의 방법들에 앞서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알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과 환경 및 인간작업에 영향을 주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는 영적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재난대처 영적 작업

존 레녹스(2020)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크리스천이 취할 첫 번째 행동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암의 시대, 매독의 시대, 중풍의 시대, 공습의 시대, 철도 사고의 시대, 자동차 사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전채 새로운 상황인 것처럼 과장하여 생각하지 말자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만일 우리가 핵폭탄(코로나바이러스)에 폭발될 것이라면, 그 폭탄(바이러스)이 올 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양 떼처럼 다함께 웅크리고 폭탄(바이러스)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명하고 인간다운 행동 - 기도하기, 일하기, 가르치기, 읽기, 음악 듣기, 자녀를 목욕시키기, 테니스 치기, 맥주를 마시고 다트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기 등- 을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핵폭탄이 우리의 몸은 부술지 몰라도(세균도 그럴 수 있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필요는 없다.”

최근 작업치료학계에서 전인적 접근에 있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들을 중재 계획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예로 기독교의 기도, 찬송, 성경읽기, 예배, 캠프, 묵상 기도, 큐티, 순교자 탐방 등의 영적 작업들을 제시하였는데(Hemphill, 2015, 11),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져다주는 작업 참여의 선택은 사람이 기능적으로 되는 것에 절대적이고 영적 충만에 이르는 과정이며, 영적 작업치료의 목적은 환자로 하여금 영적 충만을 이끄는 작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Donica, 2008, 114). 리차드 포스터(1982)는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으로 내면의 훈련들(묵상, 기도, 금식, 공부)과 외면의 훈련들(단순화, 고독, 순종, 섬김) 및 공동 훈련들(고백, 예배, 인도, 경축)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든 훈련들이 영적으로 의미 있는 영적 작업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작업치료사들은 각 환자들의 영성이 급성 질병, 만성 질병, 또는 장애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삶과 변화들에 적응될 때 발달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됨을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Schultz, 2011, 755-763: 이계능·황기철, 2016에서 재인용).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불행하거나 행복해지는 기로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세상일을 긍정적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구축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과소비되는 감정적 에너지를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에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된다(2011, 김주환, 18-19). 코로나19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기회로 인식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있었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복탄력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작업 수행의 4가지 요소인 영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통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며(Sumsion & Blank, 2006, 109-124),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는 영적이고 사회적 존재로써 작업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Jennifer & Lesley, 2012; 이계능·황기철, 2016에서 재인용). 즉, 작업은 일생 전반에 걸쳐 발전하며, 인간이 작업을 형성하는 것만큼 작업 또한 인간을 형성하며(Jennifer & Lesley, 2012, 79),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인식하고 삶의 모든 작업을 영성을 바탕으로 의미를 두고 작업에 참여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영적 작업이 되고 직접적으로 영적 층만에 이를 것이다(Donica, 2008, 115). 작업치료에서는 삶의 기술을 상실한 클라이언트에게 일상적 삶의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 클라이언트 본인에게 의미 없는 활동은 단순한 활동이나 노동일뿐이고 작업치료에서의 '작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파머(Palmer, 2019)는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오며, 하나의 테크닉으로 격하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교육에 있어서도 How(교수방법)보다 교수의 Who(정체성)를 매우 강조하였는데, 작업치료학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 작업을 숙고해 볼 때, 삶의 모든 작업에 영성을 바탕으로 한 목적과 의미를 둘 수 있는 그 사람의 정체성(Being)이 작업의 수행(Doing)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How) 작업을 수행(Doing)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수행(Doing)을 하기 위한 그 사람의 정체성(Being)이 더욱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하면 코로나 이후의 길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여기'가 그 출발점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코로나 이후의 삶도, 천국의 의미도 퇴색하고 말 것이다(김종생, 2020, 22).

일상의 삶에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시 127).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삶의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걷는 것이 행복이며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최근 작업치료학에서 휴식과 잠을 중요한 작업 영역의 하나로 삼은 것은 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복이라 말씀하신 성경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어 맡기는 단잠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작업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2020)는 달라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창의적 확장성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분야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선교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창의적 접근을 해야 하고, 둘째, 의도적 개방성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의도적으로 문을 열고 찾아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만나야 하며, 셋째, 관계적 공동체성을 가져 소외된 이들을 연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절실히 요구되는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이 세 가지 전략은 선교현장에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모든 삶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도전하는 영적 작업의 훈련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지만, 베니스 운하에 물고기가 돌아온 것처럼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 기독교 가정들의 잃었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은 우리에게 자택대기를 명령했지만, 교회교육은 가정신앙의 사명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 현재의 교육방향에 대한 영점조정 작업을 이어 나가야 한다(최세나 외, 2020, 278).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신명기에 나타난 신앙교육 원리인 쉼의 핵심처럼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자녀가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노진아 외, 2020, 228). 또한, 교회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흠여지는 교회’와 ‘일상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도록 도전받게 되었고 기독교인은 수많은 신앙적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할 책임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권대현 외, 2020, 204). 조성돈(2020)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건물과 제도를 내려놓는 교회의 뉴노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매체의 변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콘텐츠로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이루어내며 신앙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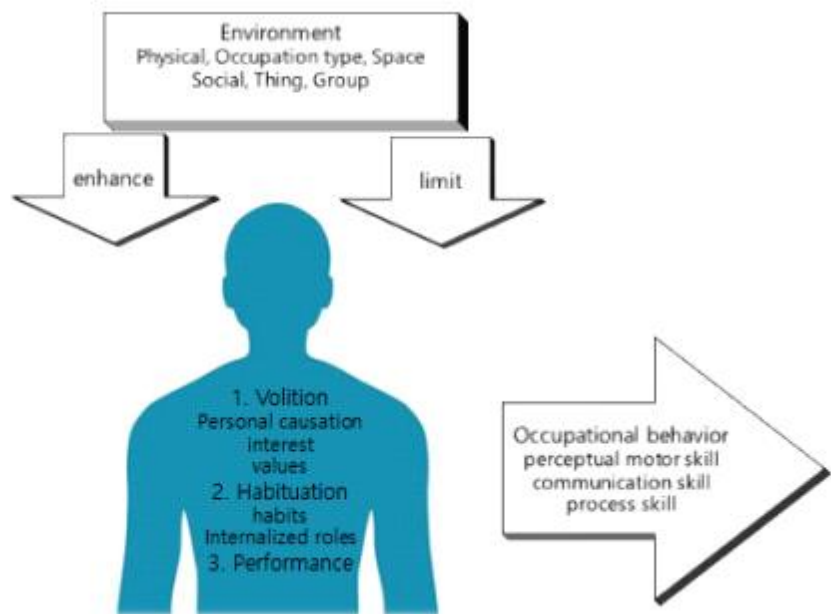
황을호(2020)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을 인정하고, 일반 은혜로 주신 지혜를 존중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내며, 특히 현장에서 분투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였다. 루터는 “크리스천은 역병에서 도망쳐야 하는가?”라는 팸플릿을 만들어 역병에 대한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반응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입지에서 죽는다. 크리스천 의사들은 그들의 병원을 버릴 수 없고, 크리스천 관리들은 그들의 구역에서 도망칠 수 없고, 크리스천 목사들은 그들의 회중을 버릴 수 없다. 역병이 우리의 의무를 용해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해야 할 십자가로 돌린다.”라고 뚜렷하게 진술했다(존 레녹스, 2020, 75).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현장에 필요한 의료 봉사나 물질적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는 일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여야 한다(황을호, 2020, 47).

정신사회 작업치료에서는 외적통제중심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을 ‘저당(pawns)’이라고 부르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붙들린 볼모, 인질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며, 그에 반해 내적통제중심지로 살아가는 사람들(그들 자신과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원(origins)’이라고 부르며 그런 사람들은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능한 행위자로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상을 가진다고 말한다(Jennifer, 2004, 132). 기원(origins)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자신의 삶에 내적통제중심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주변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상을 가진 유능한 행위자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내적 통제중심지(기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생겨난 동기(motivation)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내적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 외에 인간의 어떤 동기들도 진정한 ‘내적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황기철, 2019, 32-33).

작업치료학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모델 중 하나인 인간작업모델(Model of Human Occupation)에서 바람직한 인간상은 자기관리, 일, 놀이 작업에서 자기 만족감을 얻으며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람은 탐구적이고, 성취적이며 자신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이재신 외, 2014, 85),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내적 작업처리과정을 주도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Figure 2). 즉, 인간 자신의 내적 작업처리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자신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다는 작업치료의 믿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 자신의 내적 작업처리과정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 내적통제 중심지를 가져야 할 것이고 이 내적통제 중심지(기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생겨난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작업할 때 그 작업이 인간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기원(origins) 되시는 하나님께로 받은 새 마음에서 생겨난 삶의 진정한 내적동기가 인간의 내적 작업처리과정을 거치게 되어 인간의 행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적 환경에 제한적 존재인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상호작용으로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영적작업 수행 즉, 영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수행의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일상생활활동, 일, 놀이 및 여가 등의 작업영역에 영적 작업의 변화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재난의 공포에 짓눌려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삶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아 새롭게 변화하는 영적 작업의 삶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Human open system(kielhofner, 1997)
 [Figure 2] Model of Human Occupation

III. 나가는 말

작업치료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상실된 삶의 기술들을 그 사람 본인의 목적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인 ‘작업’을 통하여 회복시켜 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본인의 정체성(Being)이 매우 중요하며, 인간이 재난과 같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 자신의 내적 작업처리과정의 중심에 기원(origins)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내적통제 중심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시공간을 포함한 환경과 인간 및 인간작업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비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새 마음을 받는 영적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내적통제 중심지에서 생겨난 진정한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영적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의 회복탄력성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면서 재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정현 (2016). 재난상황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고찰.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6(2), 21-30.
- 김종생 (2020). 코로나 이후의 길은 ‘지금 여기’가 그 출발점. **기독교연합신문**, 1531, 22.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2008). **홀리원 주석성경**. 서울: 예장출판사.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공보부 (2015).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재난과 작업치료를 바라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blog.naver.com/dahye7942/220332120548>
- 리차드 포스터 (1982).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서울: 보이스사.
- 박동일 (2020). **코로나 19바이러스와 하나님의 심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5, 31-36.
- 송용원 · 박혜원 · 김성근 · 이상록 · 정경환 · 이석영 · 김정태 · 고은식 · 최태양 · 성현 · 이재윤 · 이소윤 · 홍성호 · 유미호 · 도현명 · 고원석 · 권대현 · 백성우 · 노진아 · 박신애 · 강희성 · 조인재 · 최세나 (2020). **재난과 교회 : 코로나19와 그 이후를 위한 목회적·교육적 성찰**.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신영전 (2020). 코로나 19 대유행시기의 보건복지: “은 보건복지(One Health & Welfare)를 향하여”. **보건사회연구**. 40(1), 5-10.

- 이계능 · 황기철 (2016). PIPES 인성교육모델에 기반한 영적 작업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영성과 인성변화에 미치는 영향. **신앙과 학문**, 21(4), 51-74.
- 이재신 · 이택영 · 이지연 · 유은영 (2014). **작업치료학개론**. 서울: (주)탐메디오피아.
- 정운화 (2018). 재난 상황에서의 작업치료. **작업치료협회보**, 67, 13-20.
- 조성돈 (2020). “코로나로 인한 변화 아무도 몰라…예배도 ‘뉴노멀’맞이할 것”. **기독교연합신문**, 1535, 6.
- 조성돈 (2020). 회개하라 뉴노멀이 다가왔다. **기독교연합신문**, 1533, 22.
- 조용중 (2020).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 두려워 말고 창의적 접근해야”. **기독교연합신문**, 1531, 6.
- 존 레녹스(2020). **코로나바이러스와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서울: 아바서원.
- 존 파이프 (2020).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서울: 개혁된실천사.
- 한 회 (2019.06.25). 재난 그 이후, 생존자의 권리.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8185
- 황기철 (2019). 삶의 우선순위와 인간작업.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세상읽기**, 23, 32-37.
- 황을호 (2020). **COVID-19 대유행병과 기독교**, 서울 : 생명의 말씀사.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11).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y in disaster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5(6), S11. doi:10.5014/ajot. 2011.65S11
- Donica D. K. (2008). Spirituality and occupational therapy: the application of the psychospiritual integration frame of reference.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Geriatrics* 27(2): 107-121.
- Hemphill, B. (2015). Spiritual assessments in occupational therapy. *Ope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3). 1-16.
- Jennifer, C. (2004). **정신사회작업치료학**, 김경미 외 9인 역, 서울: 한미의학.
- Jennifer, C., Lesley, L. (2012) **정신사회작업치료학**, 정신사회작업치료학 편찬위원회 역, 서울: 한미의학.
- Kielhofner, G. (1997). *Conceptual foundations of occupational therapy*, 2nd ed. Philadelphia: F. A. Davis.
- Mynard, L. (2020). **방해 받는 일상 -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관리**.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역. 서울: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원저 호주작업치료사협회 작업치료 가이드, www.otaus.com.au)
- Palmer, P. J. (2019). **가르칠수 있는 용기**. 이종인,이은정 역. 서울: 한문화멀티미디어.(원저 2007 출판)
- Schultz, E. (2011). *Spiritual occupation. in C. Brown and V. C. Stoffel(Eds.),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A vision for participation*. Philadelphia, PA: F. A. Davis.
- Sumsion T, Blank A. (2006). *The Canadian model of occupational performance. Duncan ESA (ed) Foundations for practice in occupational therapy*, 4th edn. Edinburgh: Elsevier Churchill Livingstone.
- Whiteford, G. (2010). *Occupational deprivation: Understanding limited participation. In C. H. Christiansen & E. A. Townsend (Eds.), Introduction to occupation: The art and science of living* (2nd ed., pp. 303 - 328).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재난에 대처하는 영적 작업

The Spiritual Occupation of Dealing with Disaster

황기철(백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펜데믹과 같은 재난에 실질적인 작업치료적 대처 및 재난의 영적인 의미와 영적 작업을 통한 재난대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작업치료는 재난으로 인해 상실된 삶의 기술들을 그 사람 본인의 의미 있는 활동인 '작업'을 통하여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대처 작업들을 제시하였다. 인간이 재난과 같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인간 자신의 내적 작업처리과정의 중심에 기원(origins)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내적통제 중심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새 마음을 받는 영적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내적통제 중심지에서 생겨난 진정한 '내적 동기'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영적 작업'을 통해 재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의 회복탄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재난대처, 영적 작업, 작업치료, 내적 동기, 회복탄력성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재난에 대처하는 영적 작업	발표자	황기철
		논찬자 (소속)	김지원 (백석대학교)

황기철 교수의 『재난에 대처하는 영적 작업』은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작업치료적 대처와 함께 재난의 영적인 의미와 영적 작업을 통한 대처 방안을 고찰한 논문이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논문이라 생각하며 간단히 논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황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작업영역 참여의 제한이 삶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작업치료 전문가들은 작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적절한 방법으로 최적의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로 준비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재난의 영적 의미에 대하여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그분의 확성기이다”라는 C.S. Lewis의 글을 인용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마음을 받은 영적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재난에 대처하는 영적 작업에 대하여는 내적 작업처리과정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계신 내적통제중심지를 가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을 읽으며 생각하게 되는 몇 가지 점들을 나누며 논평에 같음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사회작업치료에서 사용하는 ‘외적통제중심지’와 ‘내적통제중심지’의 구분에 있어 하나님의 영향을 ‘내적통제중심지’로 한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질문하게 된다. 황 교수는 ‘내적통제중심지’의 기원을 하나님이며, 내적통제의 기원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생겨난 동기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내적동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제’라는 단어가 다소 불편하게 다가오지만 작업치료라는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인간의 작업 환경에서 ‘내적통제중심지’만을 하나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인간 세상의 다양한 환경과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내부와 함께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작업치료학의 치료모델인 인간작업모델(Model of Human Occupation)을 설명하는데 있어 황 교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의 내적 작업처리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시한 그림에는 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의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황 교수의 연구가 작업치료분야의 인간작업모델에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제공하여 기독교 신앙과 작업치료 학문분야의 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